

## 장재민 개인전

### 《Line and Smoke》



장재민, <깊은 웅덩이 끝 Edge of a Deep Puddle>,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구아슈, 200 x 150cm (2), 200 x 300cm

전시제목 : 장재민 개인전 《라인 앤 스모크》

전시기간 : 2024년 1월 31일(수) – 2024년 3월 2일(토)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고재 오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총 22 점

○ 담 당 신리사 [lisashin@hakgojae.com](mailto:lisashin@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40131-20240302\_장재민, 라인 앤 스모크

## 1. 전시 개요

하나의 국가에서 40 대 예술가는 국가 미술계를 떠받치는 기층(基層)이다. 40 대의 현재가 밝으면 향후 그 국가의 문화는 꽃을 피운다. 우리의 박서보(1931-2023) · 정상화(b.1932) · 이우환(b.1936)이 40 대였던 1970 년대부터 30 년이 지나고 21 세기가 되어서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40 대 회화가들의 미래 또한 밝다. 이들도 머지않아 꽃을 피울 것이다. 이우성 · 박광수 · 허수영 등 40 대 작가들이 세계 미술계에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곳곳의 일반 대중에게 두루 알려지고 있다. 목표 수용자(Target Audience)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서 2 · 30 대부터 지역과 문화권을 가리지 않고 한국 현대미술에 관심을 기울인다. 관심의 초점은 한국 현대회화가 지닌 변화무쌍하고 자유로운 새 형식에 있다. 서구 회화는 전대 회화(precedent form)의 역사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 형식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대 한국의 젊은 회화는 전인미답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자기 회화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다. 이우성의 온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시간, 박광수의 숲이라는 상징 세계, 허수영의 시간의 집적과 같은 주제를 시각적 형식으로 구현한 성공 스토리는 세계 미술계에서도 매우 드문 예시이다. 우리 젊은 작가들의 재능은 앞으로 새로운 미술 형식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회화가가 있다. 장재민이다. 장재민은 풍경화를 그린다. 풍경화가 걸려있는 정물화를 그려서, 풍경과 정물의 경계를 지우기도 한다. 작가는 특정 시간의 특정 공간을 그렸지만, 관람객은 시공간을 특정할 수 없는 모호함에 에워싸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마주치는 공간에서 낯선 모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겨우 익숙해진다. 장재민 작가는 빠른 필치와 대담한 구성으로 현대회화의 문법을 깨고 있다. 정물화와 풍경화가 공존한다든지, 중심 테마가 존재해야 할 중심은 비워지고 주변부가 채워진다든지, 아니면 화면이 날날이 분리되어 공기로 사라지는 느낌을 준다든지 하는 작가의 회화 세계는 파격의 연속이다. 문제는 이러한 회화 형식이 장재민이 이룩한 유일무이한 형식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작가를 세계에 알려야 하는 이유이다.

## 2. 전시 주제 | 라인 앤 스모크(Line and Smoke)

한국 미술계의 젊은 주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재민(b. 1984) 개인전 《라인 앤 스모크》가 학고재에서 열린다. 2020 년 학고재에서 개최되었던 《부영이 숲》 이후 3 여 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이다. 작가가 2023 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제작한 아크릴릭 구아슈 작업을 선보인다. 풍경화와 정물화에 인식론의 개념을 입혀서 역사적 연원이 깊은 두 장르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게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안다. 플레이해야 할 화면이 처음에는 가려져 있는데,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할수록 가려진 화면이 조금씩 열린다. 게임이 완전히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전체 지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인식도 이와 같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가보는 장소가 익숙하지 않다. 처음 가보는 장소, 타지, 외국은 낯설다. 처음 맞이하는 장소를 바라볼 때 완벽한 모습이 뇌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떤 장소에 대한 시간이 누적되고 경험이 반복될 때 비로소 장소의 본질을 파악한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밭을 보았을 때, 대나무 하나하나의 특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대밭을 수시로 와서 대나무를 마주하고 쓰다듬고 바라보아야 대밭의 특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듯 사물의 상태가 파악되는 경지를 서양 철학에서는 사물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구했다고 말하며, 동아시아 유학에서는 격물(格物)하여 치지(致知)에 도달했다고 표현한다.

서양은 풍경이나 사물의 객관적 형태를 화면에 정확히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동양화는 사물의 객관적 형태를 재현하는 것은 하품의 인식으로 삼았고 기운생동의 추구야말로 높은 경계의 회화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서양의 풍경화와 정물화는 객관적 사실을 잘 표현했다기보다 수학의 법칙과 광학의 도구를 회화에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처음 보는 풍경과 사물을 수학적 도구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기운생동이라는 동양적 인식은 파악하기에 더욱 요원하다. 다만 수만 번을 그리고 사물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수준을 고도화했을 때 기운생동이 다가온다고 보았다.

장재민은 풍경화와 정물화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취한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대한다는 서구의 거만함도 없으며, 기운생동을 표방하여 도달하기 어려운 고원한 지점에 가치를 두지도 않는다. 풍경을 접하고 사물을 마주하는 처음의 순수한 상태, 모든 것이 파악되지 않은 모호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그린다. 그러한 상태는 의식이 순수한 상태이다. 작가는 화학(畫學)의 지식에 붙잡히지 않으며, 미술사의 전거(典據)에 구속되지 않은, 초탈(超脫)의 상태로 돌아오고자 한다. 동서양의 모든 진리를 재고하여 처음으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이때 작가가 그리려는 풍경이나 사물은 마치 화면에서 부유하듯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를 두고 작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필선이라 생각하여 《라인 앤 스모크》라고 명명했다. 장재민의 회화세계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지를 구축하여 한국 회화계의 새로운 바람을 예고한다. 특히 이번에 출품하는 <나무>, <먼 곳의 밤>, <새들의 자리>, <언덕>, <폭포>, <검은 산의 새>와 같은 작품은 근래 우리나라 회화계에서 흔치 않았던 회화 유형이자 수작이다. 유럽 인상주의 회화는 인상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 동양화의 옛 거장은 생명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장재민 작가는 있는 그대로 의식이 가는 바대로 그리기에 자연스럽게 청신하다. 그들이 언뜻 비슷하면서도 내용이 천양으로 다르다.

### 3. 작품 소개



〈깊은 웅덩이 끝〉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구아슈

200 x 150cm (2), 200 x 300cm

작가는 화면의 중심에 물웅덩이를 배치했고 주변에 나무숲으로 에워싼 구조를 취하고 있다. 웅덩이로 나뭇가지가 떨어진 것인지 새가 수영(遊泳)하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중심부가 비어있고 주변부가 채워있는 구조는 서구회화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들다. 다만, 동아시아에서는 유백(留白, intended blank), 혹은 공백(空白), 여백(餘白), 여옥(餘玉)과 같은 개념이 육조 시대에 발아하여 송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바 있다. 허실상생(虛實相生)이라는 개념은 깊이 들어가면 “큰 소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거대한 상은 형태가 없다(大音希聲, 大象無形)”와 같은 동양의 지혜가 회화에 적용된 경우이다. 드러난 형태보다 잠재되어 내재하는 가능성이 회화의 진리라는 측면에서 동양예술론의 지혜는 심원한 여운을 남긴다. 장재민 작가는 허실 개념, 즉 니힐리티와 리얼리티 사이의 상호 개입의 문제를 회화의 주제로 삼아서 2024년 현재 상당한 경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섬〉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구아슈

117x91cm

<섬 An Islet>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중구조를 갖는다. 전면에 화초가 꽂힌 화병이 있고 후면에 섬이 그려진 풍경화가 걸려있다. 풍경화는 외딴섬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파도를 암시하는 푸른 붓질이 좌우를 가로질러 속도감을 더한다. 문제는 파도의 붓질이 풍경화 밖으로 돌출하여 후면의 벽과 전면의 화병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풍경화의 붓질과 풍경화 밖의 정물도 같은 붓질과 색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람객은 두 세계 사이에서 모호함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은 이번 전시회 《라인 앤 스모크 Line and Smoke》의 타이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필선은 허와 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즉, 대상과 텅 빈 허공의 관계가 무한으로 확산한다. 화초와 섬은 관객의 이성에서는 구분되지만, 회화적 감수성으로 보자면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lt;열매들&gt;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구아슈  
140x120cm

<열매들 *Fruits*>이라는 작품이다. 아크릴릭 구아슈 회화의 특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수채화가 지닌 수분의 가벼운 물성과 유채의 무거운 점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을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작가는 밑으로 처지는 과일의 풍성한 성숙을 중력의 흐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탁한 푸른 색 기운 사이로 언뜻 비추는 주황빛의 과실이 절묘하게 화합하고 있다. 작가는 물감이 캔버스에 채 마르기 전에 아래로 흐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살리는 가운데 빠른 필치로 가지와 앞과 과실을 그렸고, 구성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lt;나무&gt;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구아슈  
145x112cm

<나무 *A Tree*>라는 작품은 이번 전시에 엄선된 작품 중에서도 압권이다. 황갈색(tan) · 올리브색(olive green) · 적갈색(burnt sienna) · 옅은 회색(pale gray)의 네 가지 색조를 배합하여 앞면의 나무와 후면의 건물을 배치했으며 나무 사이로 적갈색의 지면을 드러나게 구성했다. 테마를 이루는 나무는 2차원적 평면으로 해체되어서 다시 조합되었는데, 구성과 힘이 웅골지다. 가장 단순한 형식의 체현은 소박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화려한 최종단계라는 미학개념이 있는데(絢爛之極歸御平淡), 이 작품이 그러한 미적 속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 나무 사이로 공간이 비어있음에도 전체적으로 구성이 가득 차 있고 청신한 기운을 응축하고 있다.

#### 4. 작가 소개

장재민은 1984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회화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금호미술관, 포스코미술관, 보안 1942,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스코프 앤 스케이프》(2023,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페피니에어 19》(2019, 도멘 드 케르케넥 미술관, 모르비앙, 프랑스), 《금호영아티스트: 16 번의 태양과 69 개의 눈》(2019, 금호미술관, 서울), 《넥스트코드 2019》(2019,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두렵지만 황홀한》(2015, 하이트컬렉션, 서울) 등이 있다. 2015년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을 받았으며, 2014년 제36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로 선정됐다. 부산현대미술관, 국립해양박물관, 금호미술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등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체 시 글쓰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재민 개인전: 라인 앤 스모크

문소영 | PS Sarubia 큐레이터

시간성이 희미해질수록 더 가까이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그곳은 지도에도 없고, 애써 떠올린 단어들을 말하는 대신 입에 머금게 하는 곳이다. 풍경이 작가의 감정과 경험을 응축하는 한점의 비유라면, 장재민은 풍경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오히려 비유의 바깥을 살핀다.<sup>1</sup> 그가 그려내는 것은 존재하는 것과 잔상으로 남은 것, 그리고 작가 내면의 무언가가 서로 공명하는 순간들이다. 그는 장면 안에서 부차적인 감각과 화자의 시선이 어긋날 때 새롭게 발생하는 맥락을 관찰한다. 풍경을 떠오르게 한 본질과 그 안에 머물게 된 대상의 처지를 번갈아 떠올리며 다양한 시점으로 장소를 바라보고, 그 이면에 머무는 감각을 잡아 표면 위로 드러내는 작업을 해왔다. 학교재에서 열리는 《라인 앤 스모크》에서 선보이는 그림 속 이미지들은 실재하지 않는 곳이며, 경험으로부터 자라났지만 상상을 통해 열매처럼 맷히고 개별적인 그림으로 수확된 독자적인 풍경이다. 작가의 필적을 통해 마음에 스며있던 시간들이 캔버스 위로 우러난다.

이번 전시에서 장재민은 아크릴릭 구아슈(acrylic gouache)의 물성을 응용하여 풍경을 전시 공간으로 환기시키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자신의 회화적 언어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 왔고, 이 고민은 아크릴릭 구아슈를 연구하고 활용해 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수성 매체인 구아슈는 빨리 마르기 때문에 작가의 손짓이 여실히 드러나고, 수분에 따라 물성을 얇고 부드럽게 쌓을 수 있어 유화와는 다른 결의 매트한 층위를 구현할 수 있다. 구아슈의 이러한 특징은 붓의 운동성을 드러내 화면을 개방하고, 은유의 테두리 밖에서 서성이는 미지의 서사를 감지하게 한다. 기존 작업에서 유화의 점도 있는 물성을 통해 형용할 수 없는 감각을 손으로 빚어내듯 비유의 형태로 구현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건조한 듯 얇은 레이어들이 몽근한 깊이감을 자아내고, 관찰자의 시선을 구름처럼 드러난 풍경 속으로 스며들게 한 그림을 보여준다. 장재민은 드러나는 것들과 그 이면으로 사라지는 것 사이의 밀도를 들여다보며, 넓고 시원한 필치로 화면을 열고 묵직한 선으로 힘을 실어 풍경의 중력을 조절한다. 장재민의 풍경은 특유의 색감과 함께 드러나는데, 그는 자신의 그림에 쓸 수 있는 색과 쓸 수 없는 색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먹에서 농도가 부각되는 것처럼, 신중하게 선택된 색들은 장면에서 시간성, 온도, 낮과 밤을 지우는 대신 그곳에 맴도는 공기를 드러낸다.

<sup>1</sup> '비유의 바깥'이라는 표현은 장철문 시인의 시 「오월 낙엽」에서 빌려왔다. 장철문, 「오월 낙엽」, 『비유의 바깥』, (파주: 문학동네, 2016).

이번 전시의 제목인 《라인 앤 스모크》처럼, 장재민은 연기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감각과 서사를 가변적으로 공간에 부유하게 하고, 체화된 형상을 운동성 있는 획(line)으로써 포착한다. 캔버스는 창문처럼 열려 풍경과 전시장을 연결하고, 그림을 바라보는 자신 혹은 관객으로 하여금 장면 속에 머물게 하거나, 혹은 그곳에서 빠져나와 관망하게 한다. 그는 빠르게 엮히는 구아슈의 물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 부유하는 서사와 그림 사이를 끊임없이 경유하고, 마르고 덧대어짐을 통해 드러나는 꺾적은 풍경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장재민에게 회화란 다중적인 시간과 감정의 교차점이다. 시간을 통해 원래의 경험에서 분리된 기억들은 작업 속에서 추상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구름처럼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나무였다가 새가 되기도 하고, 호수인 줄만 알았는데 다가가니 하늘이 되는—형체로 그려지기도 한다. 형체는 수많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가령 판자, 나무, 새, 산의 모습으로 운동성 있게 뻗어나가는 획들과 함께 단서처럼 펼쳐지기도 한다. <섬>(2023)처럼 액자식으로 화면을 분할해 꿈속의 꿈처럼 분리된 두 세계를 한 폭에 담기도 하고, <정물들>(2023)처럼 풍경의 조각들을 모으거나, 모호한 형상이 대상을 해체하듯 다른 풍경 위에 녹아들거나 중첩되기도 한다. 하지만 화면 위의 이 형상들은 지표라기보다는 징후로서 결말을 열고, 풍경 속에 고여있던 시간을 전시 공간으로 퍼져 나오게 한다.

장재민의 풍경은 '화폭에 담겼다'라는 표현보다는, 작가의 감정을 복기하며 소생하는 자연처럼 유기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의 그림은 결론을 향해 진행되기보다는, 끝을 의식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나가는 작가의 시간과 공생하며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다. 때로는 신속하게, 혹은 긴 호흡으로 장면과 교감하며 레이어를 축적하고, 이러한 캔버스와의 짧고 긴 조우를 반복하며 풍경의 스펙트럼을 넓혀나간다. 유리창에 말라붙은 빗자국처럼 손쓸 틈 없이 납작하게 굳어버린 시간이 있다. 완결되고 나서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은 하늘하늘한 간지처럼 우리의 대화 사이에, 잊혀진 책 속에, 당연한 장면들 사이에 몰래 끼워져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 모습을 드러내 부재를 환기시킨다. 회화는 부재가 깨우쳐준 시간이 끊어진 지점을 지우거나 다시 연결하는 일이 아닐까. 풍경은 작가가 담아낸 시간과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간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장재민은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는 대신 머물던 자리를 담백하게 보여준다.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 6. 작가 약력

### 장재민

1984 출생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 학력

2017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전

2024 라인 앤 스모크, 학고재, 서울

2022 머디 베드, 보안1942, 서울

2020 부엉이 숲, 학고재, 서울

2018 길의 끝, 피앤씨갤러리 풍국창고, 대구

아.무.일.도, 에이라운지, 서울

2016 플로팅 컨테이너,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비린 곳, 금호미술관, 서울

2015 이중의 불구, 포스코미술관, 서울

2014 시간을 잃어버린 풍경,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 주요 단체전

2023 스튜디오 프로젝트 3,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스코프 앤 스케이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2022 살갓들, 학고재, 서울

수직의 수면,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2021 우리가 머물던 자리, 우민아트센터, 청주

비탈길을 좋아했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38°C, 학고재, 서울

2019 페피니에어19, 도멘 드 케르게넥 미술관, 모르비앙, 프랑스

프리뷰, 학고재, 서울

미메시스 AP2: 플랫폼, 낮 플랫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금호영아티스트: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회화의 시간: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 
- 넥스트코드 2019,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17 풍경 – 경계, 대구신세계갤러리, 대구  
직관 2017, 학고재, 서울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 2016 청년미술프로젝트, 엑스코, 대구  
랜드.인.사이트, 스페이스K, 과천
- 2015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회화 –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컬렉션, 서울
- 2014 동아시아국제교류전,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더 그레이트 아티스트, 포스코미술관, 서울  
제36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3 모어 스페이스: '온고잉'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전시 프로그램,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 시대의 젊은 작가들, 한국은행 한은갤러리, 서울

#### 레지던시

- 2019 도멘 드 케르게넥 미술관 레지던시, 모르비앙, 프랑스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6기, 천안

#### 수상

- 2015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홀딩스, 서울  
2014 제36회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

#### 소장

- 정부미술은행,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금호미술관, 서울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한국은행, 서울